

보도설명자료

('20. 3. 10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한-폴 정상회담시 원전세일즈 활동을 했으며, 정부 및 원전기업들도 폴란드 원전사업 수주활동을 활발히 추진 중
(조선일보 3.1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- ◇ 한국-폴란드 정상회담('19.9월, UN총회 계기)에서 대통령은 우리원전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등 폴란드 원전사업 수주를 위해 원전세일즈 활동을 전개한 바 있음
- ◇ 정부 및 원전기업들은 폴란드 원전사업 수주를 위해 고위급 면담, 폴란드 고위인사 초청, 한-폴란드 원전산업 포럼 개최 등 원전 수주활동을 활발히 추진 중임
- ◇ 3월 10일 조선일보 < “폴란드 원전 수주전, 美·日·佛 정상 뛰는데... 한국 어디에 >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.

1. 기사내용

- ①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도 폴란드와 정상회담을 했지만, 원전 수주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
- ② 한때 유력한 후보였던 한국은 점점 존재감이 약해지고 있으며, 원전산업은 기술 경쟁력만큼이나 외교적 역량이 중요한데 우리 정부가 미국, 일본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는 의문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

- ① '19.9월 UN총회 계기 문재인 대통령은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리기업의 폴란드 원전사업 참여 의지를 표명하고, 우리원전의 우수성을 설명하며 원전세일즈 활동을 전개하였음
- 또한, 문 대통령은 '18년 2월 평창올림픽 계기 방한한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우리원전의 우수성을 소개한 바 있음

- ② 우리정부 및 원전기업들은 △정부 고위급 면담, △폴란드 고위인사 방한초청, △한-폴란드 원전산업 포럼 개최 등 폴란드 원전사업 수주활동을 활발히 추진 중임
- (고위급 면담) 정승일 산업부차관은 '19.12월 폴란드를 방문하고, 에드비가 에밀라비치 개발부장관과의 면담시 원전분야 등 양국 협력방안을 논의 했으며,
 - 폴란드 원전사업을 총괄하는 나임스키 원전·에너지 특임대사와 면담을 통해 폴란드 신규원전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바 있음
- (고위인사 초청) '19.6월 폴란드 에너지부 원전국장 등 정부인사를 초청하여, 양국 정부간 국장급 면담을 갖고 양국간 신규원전사업 협력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며,
 - 한수원 본사 및 서울본부(신고리원전 3~6호기), 두산중공업 등도 견학하는 등 한국원전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한 바 있음
 - 또한, 나임스키 원전·에너지특임대사는 '19.12월 UAE 바라카 원전 현장을 방문하여, UAE-한국과의 신규원전 건설사업에 만족감을 표명한 바 있음
- (원전포럼) '19.12월 바르샤바에서 한-폴란드 원전산업 포럼이 개최되었으며, 동 행사에는 폴란드 에너지부·외교부·폴란드전력공사 등 원전 관련 정부 및 공기업 인사들도 참석하였음
 - 우리측은 한국원전의 우수성 및 경쟁력을 소개하고, 폴란드 원전사업에서 양국 기업간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음
- (향후계획) 폴란드 신규원전사업은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·일정이 미정이나, 우리정부와 원전기업들은 향후 사업계획 확정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원전수주활동을 지속 추진할 것임

※ 문의 : 원전수출진흥과 김 진 과장 / 이수홍 사무관(044-203-5333)